

# 인사말

## 존경하는 성인간호학회 회원여러분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인간호학회 회원 여러분, 지난 겨울에 드렸던 인사에 이어 여름이 짙은 지금에 다시 인사를 전합니다. 백여년만에 가장 더운 유월이라고 호들갑이던 세상이 이제는 30여년만에 중부지방에서 먼저 시작하는 별스러운 장마라는 소식으로 또다시 호들갑입니다.

하지만 가르침과 배움의 현장에서 또 환자의 생명을 어루만지는 현장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별스럽다는 더위도 또 별스럽다는 장마도 아랑곳 없이 늘처럼 묵묵히 하지만 힘찬 걸음을 계속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무덥고 또 축축한 이 계절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지난 겨울 뉴스레터에서 회원님들과 그 계획을 나누었던 성인간호학회 국제학술대회가 5월 31일 한양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거행되었습니다.

작년 춘계 또 추계학술대회 때도 그랬지만, 이번 국제학술대회 역시 우리 회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높은 학구열로 매 시간시간 뜻깊고 소중한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간호실무의 발전을 위한 이론과 연구: 경계를 넘어 (Nursing Theory and Research for Practice: Beyond the Borders)'라는 주제로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Frances Payne Bolton School of Nursing의 전학장이자 저명한 간호이론가인 Joyce Fitzpatrick 교수, The Japanese Red Cross College of Nursing의 Chieko Greiner 교수,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 책임전문위원인 오의금 연세대학교 교수, 또 성인간호학회

현회장인 제가 연자로 참여하여 주제에 대한 국제적인 안목과 각 해당국가별 관련연구와 관련실무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귀한 강연을 주신 Fitzpatrick 교수님이 귀국 후에 제게 주신 이메일에 우리 성인간호학회의 뜨거운 열정과 공교한 학문적 분위기, 그리고 성인간호학회 회원들이 전해준 따스한 마음이 무척 인상깊었노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성인간호학회의 학문적 저력과 함께 누구라도 성인간호학회와 대면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진심이 세계적인 간호학자에게도 그대로 전해진 것을 보게되어 다시 한번 성인간호학회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하고 또 저 자신도 성인간호학회의 한 부분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우리 성인간호학회의 역량을 알리는 데 필수장치가 될 영문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성인간호학회 회원들의 간호학생 국가고시 대비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교재를 출판하려는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등 성인간호학회와 성인간호학회원들을 위한 학회의 행보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국제학술대회에 보여주셨던 뜨거운 관심과 도움이 감사드리고, 2013년 남은 시간들 동안 모든 회원님들께서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순항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성인간호학회 회장 **김분환**